당신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모두의 토론회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

■ 일시

2026. 7. 26(일)
10:00 - 18:00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모두의 토론회

목차

- 토론회 시간표 — 4
- 참가자 설문 안내 — 5
- 팩트체크봇 안내 — 5
- 함께 만드는 대화의 약속 — 6
- 참가자 사전 학습 자료 — 7
- 발제 — 15

발제 1.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경과와 쟁점 ····· 16

발제 2.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왜 지금 필요한가? ····· 25
- 역사성은 지키고, 국가 정체성은 더해야 한다

발제 3. 덧붙이는 순간, 광화문은 달라진다 ····· 34
-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문화유산적 관점

토론회 시간표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0:00-10:12	· 개회 및 국민의례(약식) · 인사말씀 · 축사
진행안내	10:12-10:20	· 행사 안내 · 사전 의견수렴 결과 공개 · 현장 투표 안내
주제발제	10:20-10:50	[발제 1]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경과와 쟁점**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10:50-11:00	[발제 2]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왜 지금 필요한가?** **- 역사성은 지키고, 국가 정체성은 더해야 한다** 박현모(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11:00-11:10	[발제 3] **덧붙이는 순간, 광화문은 달라진다** **-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문화유산적 관점** 김현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
휴식	11:10-11:20	휴식
소그룹토론	11:20-12:30	[토론 1]
점심	12:30-14:00	점심
패널토론	14:00-15:20	좌장 : 양현미(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 박현모(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 김현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 · 정재환(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 배웅규(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 공학전공 교수)
휴식	15:20-15:30	휴식
소그룹토론	15:30-16:40	[토론 2]
결과 공유	16:40-17:25	소그룹 토론 결과 발표
	17:25-17:45	현장 투표 종료 및 결과 공유
폐회	17:45-18:00	단체사진 촬영 및 마무리

✔ 참가자 설문 안내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현장 투표(은하투표)를 함께 진행합니다.

온라인 투표(은하투표)는 찬반 이분법이 아닌 4점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아니다/매우 아니다)로 입장을 측정하고, 응답 분포를 별무리(은하) 형태로 시각화하는 숙의형 투표 도구입니다. **토론회 시작과 종료 시에 투표해 주세요! 제출된 의견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로 접속해 참여해 주세요.

✔ 팩트체크봇 안내

팩트체크봇은 여러분의 토론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 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나눠 드린 자료집을 근거로 답해 드립니다. 토론 중 '이게 사실일까?' 싶은 순간마다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만약 자료집에 관련 내용이 없어 봇이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팩트체크팀이 정보 확인 후 채팅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소그룹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질문도 함께 남겨 주세요.

함께 만드는 대화의 약속

존중과 평등

-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참여자로 존중합니다.
- 나이, 성별, 지역, 경험, 신념과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상대를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표현 대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 설득하거나 이기는 것 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데 집중합니다.

경청과 공감

- 우리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 "내가 옳다"고 확신하기 보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 나와 다른 의견도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존중합니다.

모두의 토론회

참가자 사전 학습 자료

▶ 참가자 사전 학습 자료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

✔ '모두의 토론회'란?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입니다. 복잡하고 찬반이 갈리는 정책일수록 국민의 뜻을 직접 듣고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내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향합니다.

광화문 현판에 한글을 함께 다는 문제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찬반이 팽팽한 주제입니다. 앞서 2026년 3월 31일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1차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번 7월 26일 토론회는 국민 20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숙의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 당일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설문으로 참가자의 생각을 확인하고, 찬성·반대 양측 전문가의 발제를 들은 뒤, 패널 토론과 조별 소그룹 토론을 거쳐, 마지막에 다시 설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검토 논의로 이어집니다.

✔ 이 자료를 읽는 방법

이 자료는 토론회에 앞서 쟁점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어느 한쪽 입장을 권하지 않으며, 찬성과 반대를 같은 비중으로 담았습니다. ① 현황 → ② 찬성 의견 → ③ 반대 의견 순으로 읽어 보시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맨 뒤 붙임의 기사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지금 무엇을 논의하나요?

가. 무엇을 정하는 자리인가요?

이번 논의는 현재 광화문에 걸려 있는 한자 현판을 떼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한글 현판을 하나 더 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아니라 '병기(추가 설치)'라고 합니다.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어디까지 원래 모습대로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공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나. 광화문은 어떤 공간인가요?

광화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광화문이 하나의 성격만 지닌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화문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광화문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나라를 대표해 온 장소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자, 그 앞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가 이어지면서 국가적 행사와 시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수백만 명이 찾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많은 사람에게 광화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둘째,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광화문을 포함한 경복궁은 1963년에 국가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법에 따라 원래 모습을 지키는 것(원형유지)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새로 더하거나 바꾸는 일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다. 광화문 현판은 고증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한자 현판이 처음부터 지금 모습 그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 현판은 역사적 기록과 고증에 근거해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왔습니다.

시기	내용
1865년 (고종 중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며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한자 현판을 제작 — 현재 현판의 원형
일제강점기~한국전쟁	경복궁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현판이 옮겨졌고, 한국전쟁 때 소실
현대	광화문을 여러 차례 복원하는 과정에서, 고증 결과에 따라 현판을 조정해 2023년 현재의 한자 현판(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에 이름

라. 세 가지 핵심 쟁점

이번 토론의 큰 질문은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아래 놓인 세 가지 물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쟁점 ① 광화문을 어떤 공간으로 볼 것인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성격과 이어지는 물음입니다. 광화문을 경복궁의 정문, 즉 원래 모습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넓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여기에는 논의의 범위를 광화문 문루(건물)로 한정할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까지 포함할지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그 위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쟁점 ② 한글이 지닌 상징성을 광화문 현판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한글이 소중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쟁점은 그 가치를 광화문 현판이라는 형태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경복궁이 한글이 창제된 세종의 공간이므로 그 상징성을 현판에 담자는 견해와, 한글의 가치는 인정하되 기존 한자 현판이 지닌 역사적 의미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섭니다. '한글은 소중하다'는 인식과 '한글 현판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쟁점 ③ 문화유산 보존 원칙과 한글 현판은 조화될 수 있는가

문화유산은 원래 모습(원형)과 참됨(진정성)을 지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일이 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가치를 담아 유산을 이어가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일인지, 문화유산의 원형과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인지입니다.

마. 중도·대안 입장도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입장 사이에서 보존과 활용,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무게를 두는 중도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되, 물리적으로 현판을 더하는 대신 디지털이나 빛으로 한글을 표현하거나, 한글날 등 특정한 시기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갈 때는 한자로(문화유산 측면), 나올 때는 한글로(광장을 바라보는 방향)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2. 찬성 의견 — “역사성은 지키고, 국가 정체성은 더하자”

핵심 가치	국가 정체성 · 한글의 상징성
기본 입장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더한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 쓰는 일이다.

찬성하는 입장은 광화문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글을 함께 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에, 오늘의 국가 정체성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 **“경복궁은 한글이 창제된 세종의 공간이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을 뿐 아니라 경복궁을 조선의 실질적 법궁으로 완성한 임금이다. 그 공간에서 한글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 **“문화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다.”** 원형을 한 시점에 고정하기보다 시대의 가치를 더해 가는 것이 오늘날 문화유산 보존의 흐름이다. 프랑스 랭스 대성당, 일본 이세 신궁,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러한 사례로 꼽힌다.
- **“훼손이 아니라 확장이다.”** 한자 현판은 경복궁 중건의 역사를, 한글 현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여준다. 두 가치는 공존할 수 있다.
- **“접근성과 상징 효과가 있다.”** 외국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광·홍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세 쟁점에 대한 찬성 입장

① 공간 → 광화문은 문화유산을 넘어, 오늘의 국가를 상징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② 한글·정체성 → 한글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 상징이므로, 대표 공간에 담을 필요가 있다.

③ 보존원칙 → 원형을 지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미래지향적 절충이 가능하다.

3. 반대 의견 — “원형과 진정성, 신중해야 한다”

핵심 가치	원형유지 원칙 · 진정성 · 역사성
기본 입장	이미 복원된 광화문의 모습을 오늘의 필요로 다시 바꾸는 데 신중해야 한다. 더하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계승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광화문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판을 하나 더 다는 일이 큰 변화라고 봅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판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다.”** 현판은 건물의 명칭·위계·중심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다. 하나를 더 다는 순간 두 현판 사이에 중심과 보조의 위계가 생겨, 광화문의 정면 모습과 인상이 달라진다. 작게 설치해도 마찬가지다.
- **“문화유산은 원형 보존이 원칙이다.”** 광화문은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며, 법은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 현재 한자 현판은 2023년 고증을 거쳐 새로 제작한 것으로, 곧바로 다시 변경하면 복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 **“한자 현판도 우리의 역사다.”** 한자 현판은 특정 국가의 소유 표지가 아니라, 조선의 문자 생활과 궁궐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요소다. 정체성이 문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문화유산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광화문에 추가하기 시작하면, 다른 문화유산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세 쟁점에 대한 반대 입장

① 공간 → 광화문은 경복궁 복원의 일부인 문화유산이므로,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② 한글·정체성 → 한글의 가치에는 공감하되, 그것을 현판이라는 물리적 형태에 새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③ 보존원칙 → 병기는 원형·진정성의 훼손이며, 역사적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

4. 참고 자료

가.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병기(倂記) — 한자 현판을 그대로 두고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것 (교체가 아님)
- 중건(重建) — 소실·훼손된 건물을 다시 짓는 것 (경복궁은 1865년 고종 때 중건)
- 원형유지 원칙 —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
- 진정성(authenticity) — 문화유산이 지닌 재료·형태·기법·정신 등의 참됨. 재료뿐 아니라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
- 고증(考證) — 옛 기록이나 사진 등을 근거로 원래 모습을 확인하는 일

나. 관련 언론 보도·칼럼 (발행일순)

발행일이 최근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칼럼·기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창] 광화문은 복원된 과거다 (이투데이 ·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6.5)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0651

'조선의 뜻' 지키고, '한글 자부심' 입히자 (더칼럼니스트 · 황인선 ·5.5)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

[구본영 칼럼]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는 시대정신 (파이낸셜뉴스 ·5.4)
https://www.fnnews.com/news/202605041833530483

[동서남북] 광화문 현판은 그냥 두라 (조선일보 · 허윤희 ·4.23)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6/04/23/GWZYDAZL3JG5ZFYBOXU7NU5SFU/

광화문 한글·한자'쌍현판' 설치는 미완의 타협일 뿐 (중앙일보 · 문소영 ·4.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1480

'광화문 한글 현판' 더 달기는 시류에 기댄 것이 아니다 (교수신문 · 김영환 ·4.15)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785

광화문 현판'한자 밑 한글' 적절한 대안 아니다 (연합뉴스 ·4.3)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2099500546

백성들 문화 담은 한글 현판, 광화문에 좋지 아니한가 (동아일보 · 조종엽 ·4.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401/133657652/2

광화문 한글 현판 추진? "국가 정체성" vs "복원 기준 무시" (한국일보 ·4.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115410004772

광화문에 걸린 것은 현판만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4.1)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3121490056213

다. 자료 출처

이상열,「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경과와 쟁점」
박현모,「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왜 지금 필요한가」
김현경,「덧붙이는 순간, 광화문은 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한글 현판 추가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광화문 현판 토론회 자료집』(2026.03.31.)

이 자료는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은 발제문과 공개된 의견조사 결과를 같은 비중으로 요약했으며, 어느 한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토론회

발제

발제 1.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경과와 쟁점

-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발제 2.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왜 지금 필요한가? – 역사성은 지키고, 국가 정체성은 더해야 한다

-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발제 3.

덧붙이는 순간, 광화문은 달라진다 –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문화유산적 관점

-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

발제 1.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경과와 쟁점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경과와 쟁점

이상열 연구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광화문과 광화문 현판의 역사적 변천

광화문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의 정문이다. 경복궁은 조선이 개성에서 서울로 수도를 이전(1395)하면서 정궁으로 건립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광화문이라는 명칭은 1426년(세종 8) 10월 26일(병술)에 정해졌는데, 여기서 광화란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서경』의 문구에서 유래하였고,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뜻을 지닌다.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조선시대 말에 중건(1865~1868)되었다. 광화문은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1926년에 현 국립민속박물관 위치로 옮겨졌고,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1968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재건축되었는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한글현판이 설치되었다. 이후, 경복궁 복원 사업(1990~2045)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광화문이 본래 위치에 복원되어 공개되었다.

광화문 복원이 진행되던 2005년에 기존 한글현판을 대체하여 정조의 글에서 필요한 글자들만 골라내어 한자현판을 만들자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광화문이 정조 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중단되었다. 2010년에 광화문 복원을 완료하면서 기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한글현판을 대신하여 일제강점기 유리 원판과 광화문 이전 전 실측 도면 등을 토대로 복원한 한자현판을 설치하였으나, 3개월여 만에 현판에 균열이 발생하고 현판 색상에 오류가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 후로 광화문 현판의 원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1893년에 촬영된 옛 광화문 현판 사진이 2016년에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발견되고, 경복궁 중건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경복궁영건일기』가 2018년에 일본 와세다대학교 고문서고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록들에 근거하여 중건 당시 광화문 현판이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디지털로 복원 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에 현재와 같은 현판으로 복원하여 설치하였다.

<표 1> 1968년 이후 광화문 현판의 변천

스미소니언박물관 유리원판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한글현판
2010년 8월 복원 한자현판	2023년 복원 한자현판

자료 : 국가유산청 사진자료 캡처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 할까?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유산인 광화문에 한글현판을 추가하는 문제는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원칙과 국가 상징성에 관한 사회적 판단을 요구한다. 더욱이 이 사안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중립적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은 광화문이 '광화(光化)'라는 이름을 얻은 지 600돌이자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80돌이고,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가 1926년에 제정한 '가갸날', 즉, '한글날'이 100돌을 맞은 해이다. 이처럼 2026년은 광화문과 한글 모두에게 역사적 의미가 중첩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이번 사안에 대해 숙의하고, 단순히 한글현판 설치 여부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문화유산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 경과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설치하는 논의는 기존에도 수차례 있었다.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한자현판의 고증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광화문 현판을 한글현판으로 교체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24년 5월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글현판으로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촉발된 바 있다. 다만, 기존 논의가 한자현판을 한글현판으로 교체하자는 것이었다면, 최근 논의는 기존 한자현판 외에 한글현판을 추가 설치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광화문에 기존 한자현판과 함께 한글현판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논의는 2026년 1월 20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검토'를 제안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지난 3월 31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제1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의 전문가가 각각 발제하고,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련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1차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글과 광화문의 중요성, 그리고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만, 한글현판 추가 설치 대상이 되는 광화문의 성격, 국가 정체성과 한글의 상관성, 광화문 및 현행 현판의 원형성, 문화유산의 원형 복원·보존 원칙과 활용의 경계 등의 문제에는 이견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토론회 이후, 공식 누리집에 「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을 개설하여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6년 4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5주간 운영된 「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에는 1,232명의 국민이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온라인 공간 등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국민 의견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표 2> 광화문 한글현판 설치 관련 의견조사 사례

조사명	조사 주체	조사시기	참여 건수
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	문화체육관광부	2026.4.6.~5.10. (35일)	1,232건(명)
최근 광화문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랩(KLAB)	2026	약 21만 건
광화문 한자현판 vs. 한글현판 설치, 배경·찬반 논란 총정리	뉴닉 (NEW NEEK)	2026.2.2.~2.4. (3일)	467건(명)
광화문에 한글현판을 달면 어떨까요?	빠띠	2026	145건(명)
국가유산 자원활동가 대상 광화문 현판 표기 방식 설문조사	(사)우리문화숨결	2026.2.3.~2.22. (20일)	216건(명)

자료 : https://www.mcst.go.kr/site/s_minwon/ePubVoice/pubVoice.jsp
https://www.youtube.com/post/Ugkxk16lR4woVrrTEsUFego-dPcsJ5qRcKVa
https://newneek.co/@pizzastation/article/38449
https://campaigns.do/surveys/591
https://palaceguide.or.kr/notice/?bmode=view&idx=170194315

3. 일반 국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 의견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한 「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에 제시된 의견을 분석하면, 찬성 의견에서는 단순 찬성 의견 외에 한글의 가치와 상징성, 자긍심과 국가정체성 등을 논거로 제시하는 경향이었고, 반대 의견에서는 대부분이 문화유산 원형 유지 원칙과 원형보존 원칙, 역사성·진정성 훼손 우려를 논거로 제시하는 경향이었다. 찬성 의견은 한글의 가치와 국가 상징성, 공간의 현대적 활용 등을 주된 논거로 제시하는 경향이었고, 반대 의견은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원칙과 역사성·진정성 유지를 중심 논거로 제시하는 경향이었다.

<표 3>「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의 일반 국민 의견

구분	논거	비율
찬성	단순 찬성・기타	34.7%
	한글 가치・자긍심, 국가정체성	30.9%
	세종・훈민정음・경복궁 상징성	20.2%
	전통과 현대의 공존・병기 조화	7.1%
	시대 변화・현재성・미래세대	4.8%
	가독성・접근성・관광 효과	2.1%
	역사 바로세우기・사대주의 비판	0.2%
	합계	100.0%
반대	원형 보존 원칙, 역사성・진정성 훼손 우려	77.5%
	단순 반대・기타	12.2%
	추가설치 불필요, 미관/경관 훼손	6.0%
	한자현판도 한국 전통	2.0%
	행정력・예산 낭비, 정책 비판	2.0%
	대안 활용 제안	0.3%
	합계	100.0%
기타	한글 단일현판・교체론	73.3%
	판정 어려움	26.7%
	합계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의견조사 결과 참조 정리.

2) 유관 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유산, 역사, 건축, 경관, 국어, 한글, 정책, 콘텐

츠 등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와 관련한 유관 분야 전문가(n=31)를 대상으로 제1차 토론회에서 파악된 쟁점에 대한 의견과 유사 사례에 참고할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위해 「문화유산 원형과 현대적 상징성」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전자우편을 통해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 받는 방식으로 4월말~6월초에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여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쟁의 성격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와 관련한 논쟁을 '문화유산 보존·복원'이나 '국가 상징·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현행 한자현판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었고, 국가 상징·정체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한글현판 추가 설치에 보다 우호적인 경향이었다. 이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광화문 현판 열린 대화방」에 참여한 찬반 의견의 경향과 유사하다. 이 밖에 '문화정책·갈등 관리 사안'이라는 선택도 적지 않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4>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성격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문화유산 보존·복원	17(54.8%)	6(19.4%)	23(37.1%)
국가 상징·정체성	11(35.5%)	10(32.3%)	21(33.9%)
문화정책·갈등관리	1(3.2%)	8(25.8%)	9(14.5%)
언어·문자정책	1(3.2%)	3(9.7%)	4(6.5%)
공공 공간의 표현방식	1(3.2%)	3(9.7%)	4(6.5%)
합계	31(100.0%)	30(100.0%, 유효응답*)	61(100.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 참조 정리.

다음으로,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선택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6명의 무응답을 제외한 25명의 응답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문화유산의 진정성·원형 보존'과 '광화문의 국가 상징성'이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전자를 중요하게 본 견해에서는 광화문은 경복궁 복원의 일부이므로 고증과 역사성 보존, 문화유산 보존에서 진정성과 원형성이 기

본 원칙임을 강조하였다. 후자를 중요하게 본 견해에서는 광화문은 우리나라의 대표 공간이고 한글은 문화적 상징이므로, 한국을 가장 잘 상징하는 한글현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정당성도 주요 고려요소로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전문가들에게 이번 사안이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로 인식됨을 알려주며, 공론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표 5>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중요 고려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복수 선택)

구분	선택 건수
문화유산의 진정성・원형 보존	14(28.0%)
광화문의 국가 상징성	13(26.0%)
한글의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8(16.0%)
절차적 정당성(의견수렴・심의 등)	8(16.0%)
국민 이해도 및 수용성	5(10.0%)
건축적 조화와 미감	2(4.0%)
합계	50(100.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 참조 정리.

4.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쟁점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그간의 경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 사안을 국가 정체성 및 한글의 상징성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현행 한자현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 사안을 역사적 가치, 문화유산의 진정성, 그리고 법에서 규정한 문화유산의 원형유지 원칙[1]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에 비해서 중도적 입장은 찬반 입장을 고려하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이 사안을 바라본다. 찬반 입장에서도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광화문은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의 정문이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제3조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원형유지 원칙은 문화유산법의 전신인 「문화재보호법」을 1999년 1월 29일에 일부개정하면서 법률에 명시되었다.

<표 6>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입장별 논점

구분	찬성	반대	중도
핵심 가치	국가 정체성, 한글의 상징성	원형보존 원칙, 문화유산 진정성, 역사성	보존과 활용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논거	대한민국 대표 공간 광화문에 국가 정체성의 핵심요소인 '한글' 병기 필요	광화문은 문화유산이므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원형 훼손, 역사왜곡 우려	현판의 물리적 변경은 신중, 비침해적 방식 우선 검토
세부 내용	•한글의 우수성, 세종과 훈민정음의 가치 강조 (경복궁은 한글이 창제된 곳으로 의미 살릴 필요) •광화문은 국가상징 공간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체성 표현 필요 •외국인 이해도, 관광·홍보 효과 기대 •기존 한자현판 유지와 한글현판 병기를 통한 미래 지향적 절충 가능 •문화유산의 원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재해석 필요	•문화유산 원형, 역사성, 진정성 훼손 우려 •정책 일관성 및 신뢰도 저하(현재 현판 2023년에 교체) •미관상 부조화, 문화유산의 도구화 경계 •한자 역시 한국문화의 일부 •광화문에 한글현판 추가 시, 다른 문화유산으로 확산 가능성 우려	•현행 한자현판 유지 전제하에 조건부 대안 검토 •디지털/빛 연출 또는 특정 계기 한정 한시적 표현 등 보완방안 검토 필요

각 입장에 따라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와 논거, 세부 주장은 다양하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면서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면, 크게 광화문을 둘러싼 공간의 상징성, 국가 정체성이자 상징으로서 한글, 문화유산 보존·복원의 원칙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들 쟁점은 역사적 가치(문화유산), 현재적 가치(국가 정체성), 정책적 가치(공론화와 활용)와 관련되며,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쟁의 핵심적인 판단축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광화문을 둘러싼 공간의 상징성이라는 쟁점은 '광화문을 어떤 공간으로 볼 것인가'와 직결된다. 즉, 경복궁-광화문-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진 역사문화경관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와 주로 관련된다. 다음으로 국가 정체성이자 상징으로서 한글이라는 쟁점은 국가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에서 한글의 중요성은 공감하되, 이와 같은 인식과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설치하는 것의 관계성에 대한 입장 차이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보존·복원의 원칙

이라는 쟁점은 현재의 광화문과 현판을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원형유지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입장 차이와 관련된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결국 광화문에 한글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원형과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인가, 혹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오늘 진행될 찬반 발제와 토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소모임 토론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발제 2.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왜 지금 필요한가?

- 역사성은 지키고, 국가 정체성은 더해야 한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왜 지금 필요한가?
- 역사성은 지키고, 국가 정체성은 더해야 한다

박현모 원장(세종국가경영연구원)[1)]

1. 세종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 발표문을 준비하며 거듭 생각하였다. 세종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 세종은 앞날이 불확실한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옛일을 거울삼고 오늘의 형편을 깊이 살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숙고하며 만전의 계책을 세우고자 했다(세종실록 17년 8월 10일).
- 그 만전의 계책 중심에는 언제나 후대가 살아갈 더 나은 미래가 있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발표는 현재의 한자 현판을 내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한자 현판의 역사성은 존중하되,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더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남기자는 제안이다.
- 지금의 한자 현판은 흥선대원군과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 가치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 동시에 광화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이라면, 한글 현판을 함께 두는 일은 과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유산을 현재와 소통하며 진화하는 '살아 있는 유산'으로 보는 국제적 보존 철학의 흐름과도 부합한다.

2. 세종은 경복궁을 조선의 실질적 법궁으로 완성한 임금이다

---

1) 박현모 원장 경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1998)
○ 서울대학교 _ 사회과학연구원 상임연구원(1999 ~ 2001)
○ 여주대학교 _ 교수 겸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2014 ~ 2025)
○ 경기도유산위원회 _ 기념물·자연유산분과 위원(2022.3 ~ 2026.02)
○ 세종문화회관 _ 광화문광장 '세종이야기' 조성 전문위원(2009)
○ 한국학중앙연구원 _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전통연구실장(2001 ~ 2014)

1) 세종시대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세우는 대표적인 문화 자산은 한글과 K-문화이다.
- 경복궁과 광화문광장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공간이자 K-문화의 상징 공간이다.
- 따라서 이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창조성과 K-문화의 뿌리를 설명하려면,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과학·예술·국가경영의 혁신을 이룩한 세종시대가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2) 세종은 경복궁을 국가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완성하였다

- 태조가 경복궁을 창건하였다면, 세종은 그것을 국가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완성하였고, 고종은 다시 중건하였다.
- 건축사학자 임석재는 세종을 “경복궁을 조선의 실질적인 법궁으로 완성한 임금”이라고 평가하였다.
- 세종은 재위 32년 가운데 약 12년 4개월을 경복궁에서 머물며 궁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3) 경복궁은 세종시대에 정치 운영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 세종은 사정전을 중심으로 편전 체계를 정비하고, 조회와 조참을 정례화하였다.
- 1429년에는 사정전 수리를 마쳤고(세종실록 11년 4월 3일), 같은 해 봄부터 사정전에서 조참을 실시하였다(세종실록 11년 4월 22일).
-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조선 정치 운영의 중심 공간은 세종시대에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경복궁은 세종시대에 생활공간으로도 완성되었다

- 세종 후반에는 함원전, 교태전, 자미당, 종회당, 송백당, 인지당, 청연루 등 여러 별전이 새로 건립되었다.
- 세종은 이를 회고하며 “내가 세운 자그마한 집[予所建小室也]”이라고 말한 바 있다(세종실록 31년 6월 18일).
- 이로써 경복궁은 단순한 의례 공간을 넘어 국왕과 왕실이 실제로 생활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궁궐로 완성되었다.

5) 세종시대 경복궁에는 국가 운영의 핵심 기능이 집약되었다

- 세종시대 경복궁은 정치의 공간이자 과학의 공간이었다. 흠경각과 간의대는 천문 관측과 과학기술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 또한 왕실 제례 공간인 문소전, 세자 교육과 왕위 계승의 공간인 동궁도 경복궁 안에 갖추어졌다.
- 정치, 과학, 교육, 왕실, 제례, 생활이 하나의 궁궐 안에서 통합된 것이다.
-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가 중심 공간'으로서의 경복궁은 세종시대에 그 성격이 뚜렷하게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세계는 문화유산을 '살아 있는 유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 오늘날 문화유산 보존은 과거의 한 시점을 그대로 고정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 역사성은 보존하되, 시대의 가치와 공동체의 정체성을 함께 담아내는 방향으로 보존 철학이 확장되고 있다.[2)]

1) 프랑스 랭스 대성당 (전통 방식 → 현대적 개입)

- 제1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랭스 대성당은 초기에는 전통 방식 중심으로 복원되었다.
-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도 문화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과거의 원형만을 고집하지 않는 보존 철학이 확산되었다.
- 이에 따라 독일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중세 스테인드글라스 일부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으로 대체되었으며, 특히 독일 예술가 이미 크노벨(Imi Knoebel)의 창은 과거의 상처를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 오늘날 랭스 대성당은 중세의 창, 20세기의 샤갈 작품, 21세기의 크노벨 작품이 함께 공존하며, 문화유산의 역사적 층위와 시대적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2) 이하 프랑스와 일본 사례는 민병두,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광화문 현판". <광화문 현판 토론회 :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한글 현판의 미래 가치> (2026.6.29.)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1. 프랑스 랭스 대성당. 한 성당 안에 중세 창, 20세기 형상적 현대 창(샤갈), 21세기 추상 현대 창(크노벨)이 공존하며 시대의 층위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2) 일본 이세 신궁(伊勢神宮) (진정성의 다층적 공존)

- 1994년 「나라(奈良) 문서」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원재료나 원형에만 두지 않고, 형태·기능·전통·기법·정신과 감정 등 다양한 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 이세 신궁은 20년마다 해체·재건되는 식년천궁(式年遷宮)을 통해, 재료는 새로워져도 전통과 기법, 정신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 이는 문화유산을 한 시점에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의 가치가 축적되며 진정성이 형성되는 '다층적 유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역사적 층위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의미를 더하는 일은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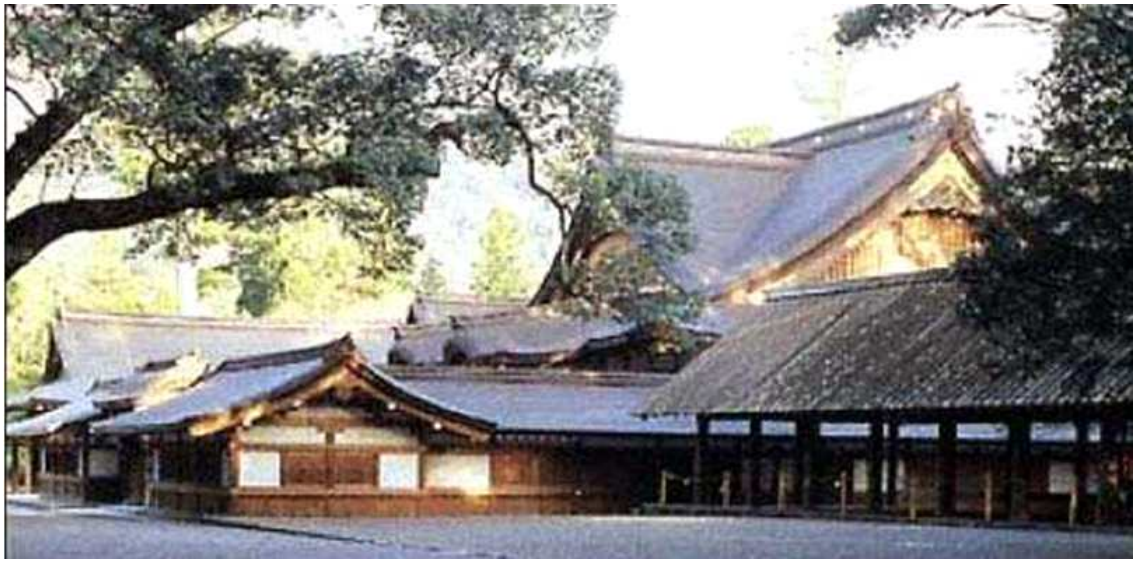

그림 2. 일본 나라현의 이세 신궁(伊勢神宮). 20년마다 새 나무로 짓는 신궁이 어떻게 '원재료'의 진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논란 끝에 베니스 헌장 제9조의 복원 원칙은 본질적으로 물질 중심의 패러다임임을 드러냄.

- 1994년 「나라(奈良) 문서」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원재료나 원형에만 두지 않고, 형태·기능·전통·기법·정신과 감정 등 다양한 역사적 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 이세 신궁은 목조 사찰을 특성으로 20년마다 주기적으로 완전히 해체하여 부재를 수리한 뒤 다시 조립하는 식년천궁(式年遷宮)임.

※ 1994년 11월 일본 나라시 대토론

▶ 28개국에서 모인 45명의 전문가들이 '세계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

▶ 미국 출신의 역사지리학자 로웬탈(D. Lowenthal)의 논문 '진정성의 기준에 관한 변화' :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보존 전문가들의 원본 그대로(intact original)"라는 관념은 사실상 허구이거나, 잘해야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 매 20년마다 새 나무로 짓는 신궁이 어떻게 '원재료'의 진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베니스 헌장 제9조가 명시한 "복원은 원재료와 진본 문서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하며,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춰야 한다"는 원칙은 본질적으로 물질 중심의, 서구 석조 건축 전통에 뿌리를 둔 패러다임임을 인정함.

- 문화유산은 한 시점에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의 가치가 축적되며 진정성이 형성되는 '다층적 유산(multi-layered heritag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역사적 층위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의미를 더하는 것 역시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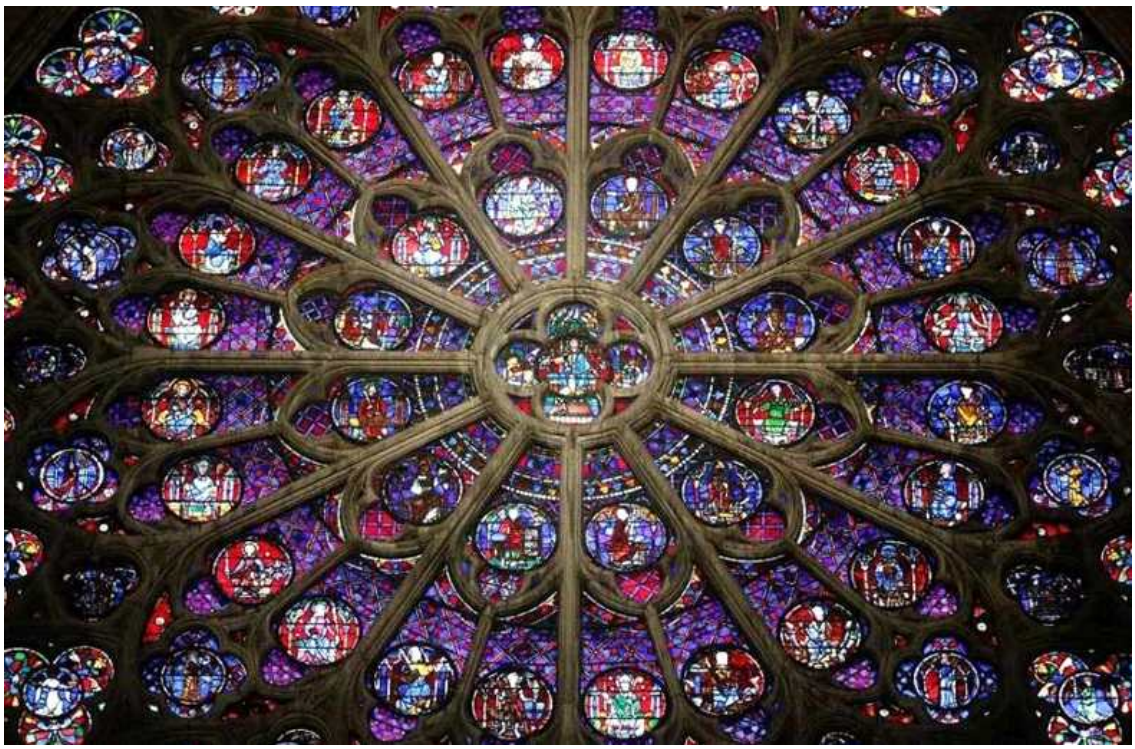

그림 3. 노트르담 대성당 본당 상부 회랑 창문. 2019년 4월 화재 이후 복원 중인 오늘날 대성당의 모습은 중세·19세기·현대의 역사적 층위가 공존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3)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역사적 층위의 공존과 현대적 계승)

- 1930년대부터 노트르담 대성당 본당 상부 회랑의 19세기 비올레르뒤크(Viollet-le-Duc) 스테인드글라스를 현대 작품으로 교체하는 논의가 이어졌다(30년간 논쟁).
-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1966년 자크 르 슈발리에(Jacques Le Chevallier)의 비형상적 추상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여, 고딕 유산 위에 현대적 해석을 더하였다.
- 이 작품은 2019년 화재 이후 복원 중인 노트르담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노트르담은 중세·19세기·현대의 역사적 층위가 공존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 요컨대 문화유산은 과거의 한 시점에 박제된 물건이 아니다. 역사적 층위를 보존하면서도 현재와 소통하며 진화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이것이 오늘날 문화유산 보존 철학의 중요한 흐름이다.

4. 광화문도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한글 현판을 추가한다고 해서 한자 현판 내지 고종 때의 경복궁의 역사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오히려 한자 현판은 경복궁 중건의 역사를 보여주고, 한글 현판은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
-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리는 더 큰 질문도 함께 던질 필요가 있다.
- “우리는 과연 어느 시대의 경복궁을 대한민국의 얼굴로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
-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세종시대 경복궁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종은 한글을 창제한 왕일 뿐 아니라, 경복궁을 조선의 실질적 법궁으로 완성한 임금이기 때문이다.

※ ‘세종다물(世宗多勿)’의 제안

- 경복궁 복원의 기준을 세종시대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단순히 현판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 이는 세종이 구현했던 국가의 정신과 국가경영의 공간 질서를 오늘의 대한민국 속에 다시 세우는 일이다.
- 이 구상은 세종 나신 곳, 곧 준수방 기념공간 조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세종이 태어난 곳과 세종이 나라를 다스린 공간을 하나의 역사문화축으로 복원하고 계승하는 것, 이것이 ‘세종다물’의 지향이다.

※ 다물(多勿)은 고구려어를 한자로 음차한 말로, ‘옛 땅을 회복하다’, ‘잃어버린 옛 영광을 되찾다’는 뜻이다(임병준, 1999).『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고구려에서는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하였다[麗語謂 復舊土 爲多勿 려어위 복구토 위다물]”고 기록되어 있다.

5. 맺음말

- 세종 때 집현전에서 편찬한 『치평요람』에는 “발꿈치를 잘라 신에 맞춘다[截趾適履]”는 말이 나온다(『치평요람』 제106권). cf: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지금의 광화문 현판 논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과거의 기준만을 고수한 채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한글의 세계사적 가치를 외면한다면, 발을 잘라 신에 맞추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다시 말하지만, 이 제안은 한자 현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한자 현판은 역사로 보존하고, 한글 현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더하자는 것이다.
-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 쓰는 일이다. 그것이 살아 있는 국가유산의 길이며,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얼굴로 세계와 미래 세대 앞에 서는 길이다.

그림 4. 한자 현판의 역사성은 존중하되,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더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남겨야 한다.

발제 3.

덧붙이는 순간, 광화문은 달라진다

-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문화유산적 관점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

덧붙이는 순간, 광화문은 달라진다
-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문화유산적 관점

김현경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들어가며 : 한글의 가치와 현판 추가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기존 한자 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 아래에 한글 현판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광화문의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한글의 국가적 상징성을 함께 드러내려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글 현판을 바라는 정부의 취지 또는 국민의 의견 역시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 현판에 대한 낯섦이나 한글 표기에 대한 기대는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한글의 가치에 공감하는 것과, 그 가치를 광화문의 물리적 형상에 새로운 현판으로 표현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논의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한글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이미 복원된 문화유산의 정면에 오늘날의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현판을 덧붙이는 일이 광화문의 역사적·건축적 성격에 부합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판 하나의 추가는 광화문의 형상을 바꾸는 일이다.

전통 건축에서 현판은 건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부수적인 안내물이 아닙니다. 현판은 구조 부재는 아니지만, 건축물의 명칭과 위계, 정면의 조형적 중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장 요소입니다. 현판의 위치와 크기, 바탕과 글자의 색채, 서체는 문루의 구조와 비례 안에서 전체 외관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기존 한자 현판 아래에 한글 현판을 하나 더 다는 일은 단순히 표기

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현판이 문루 정면의 어느 위치에 설치되더라도 기존 건축 구성과 새로운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작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두 현판 사이에는 중심과 보조의 위계가 생기며, 상하로 놓인 두 개의 판면은 단일 현판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화문의 정면을 분절하거나 새로운 수직적 축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현판이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의 비례와 시각적 안정감은 같을 수 없습니다. 기존 현판을 그대로 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형상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물의 형상은 무엇을 철거했는가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부가했는가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결국 한글 현판의 추가는 광화문 위에 작은 안내 표지 하나를 덧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단일 현판을 중심으로 완성된 문루의 정면 구성에 또 하나의 건축 요소를 도입하여, 광화문의 형상과 인상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는 사실과 오늘의 중첩은 다르다.

광화문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변화해 왔습니다. 창건과 소실, 중건과 이전, 훼손과 재건, 원위치 복원을 거쳐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현판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968년 철근콘크리트로 재건된 광화문에는 한글 현판이 설치되었고, 2010년 전통 목구조로 복원된 광화문에는 한자 현판이 설치되었고, 이후 추가로 확인된 사진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현재의 현판이 다시 복원·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광화문 위에 서로 다른 시대의 상징을 하나씩 누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968년의 재건과 2010년 이후의 복원 과정에서는 각각의 광화문 형상에 하나의 '광화문' 현판이 선택되었습니다.

1968년의 한글 현판은 기존 한자 현판 아래에 한글을 병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재건된 광화문에 하나의 현판을 선택하여 설치한 경우였습니다. 2010년 이후 한자 현판을 설치한 것 역시 조선시대 광화문의 복원 기준에 따라 전체 건축 형상과 함께 하나의 현판 체계를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느 시점의 광화문을 복원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제안은 새로운 복원 기준점을 설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조선시대의 역사적 형상을 기준으로 복원된 광화문 정면에, 오늘날의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한글 현판을 추가

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표상을 하나의 정면에 물리적으로 중첩하는 새로운 형식인 것입니다.

문화유산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현재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변화 역시 각 시대의 선택과 개입이었으며, 오늘의 선택 또한 장차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개입은 그 목적과 필요성, 문화유산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광화문의 변화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변화가 광화문의 역사와 건축적 성격에 부합하는가는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는 사실이 모든 변화의 방식에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의미는 형상을 바꾸지 않고도 담을 수 있다.

문화유산은 과거에 고정된 채 사회와 단절된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와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광화문에서 한글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읽어내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미의 변화와 물리적 형상의 변경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거나 강조한 의미를 반드시 유적의 외관에 직접 부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의 의미는 계속 확장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상징을 광화문의 건축적 형상 위에 물리적으로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한자 현판은 오늘날 특정 국가의 문화적 소유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의 문자 생활과 궁궐 건축문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요소입니다. 광화문이 한국의 유산이라는 사실은 현판에 사용된 문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복궁과 한양의 도시 구조, 조선의 정치와 의례, 일제강점기의 훼손과 해방 이후의 재건과 복원에 이르는 역사 전체가 광화문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한자를 사용한 우리 문화유산을 중국 문화와 동일시하거나 그 귀속을 오해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에 대응하는 방법이 반드시 광화문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정체성은 오늘의 문자를 하나 더

붙임으로써 증명되기보다, 그 유산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며 훼손되고 복원된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설명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글의 국가적·문화적 의미 역시 광화문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과 현판의 역사, 조선의 문자문화, 한글과 국가 정체성의 관계를 전시와 해설, 교육, 디지털 콘텐츠와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광화문의 역사적 형상을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사회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공유하도록 합니다.

유적을 보존하는 것은 유적을 박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리적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연구와 해석, 교육과 문화적 실천을 통해 현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적 자체를 변경하는 것 이외의 다양한 해석 방식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더하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계승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한글과 한자 가운데 어느 문자가 더 중요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복원된 광화문의 역사적 형상에 오늘의 상징적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더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현판 하나를 더 다는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판이 광화문의 정면성과 위계를 구성하는 건축 요소라는 점에서, 그것은 단순한 글자의 추가가 아니라 광화문의 형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존 현판을 남겨둔다고 해도, 두 개의 현판이 놓이는 순간 광화문은 이전과 다른 정면 구성과 상징적 질서를 갖게 됩니다.

광화문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대의 표상을 하나의 정면에 중첩하는 방식이 광화문의 역사와 건축적 성격에 부합하는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변화가 오늘의 모든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글의 가치와 한글 현판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이미 복원된 광화문의 정면 형상을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화문의 의미는 오늘에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해석을 반드시 유적의 물리적 형상에 직접 덧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만이 문화유산을 현재와 연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유적의 형상을 존중하면서, 그 의미를 오늘의 언어로 정확하고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 또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계승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 한자 현판 아래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방안에 반대합니다.

[메모]

[메모]

[메모]